전주매일 CMYK

▶▶ 매일 INDEX

15면
정읍 '행복나눔 공유냉장고' 개소

전주매일

2022년 10월 6일 목요일 (음 9월 11일) 제3113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경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기초학력 확실히 끌어올릴 것"

서거석 교육감, 취임 100일 맞아

➔ 관련기사 16면

"학생중심 미래교육으로 교육대전환 초석 놓아
2학기부터 기초학력 전담·보조교사 배치
학생인권센터, 교육인권센터로 확대 개편할 것
학생의회 설립·진학지도 강화 등은 계획대로"

서거석 교육감이 5일 전북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기초학력을 튼튼히 하고 학력을 끌어올리겠습니다"

서거석 교육감은 5일 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의 중심을 오로지 학생에 두겠다"면서 "기초학력 신장을 위해 당장 2학기부터 기초학력 전담교사 100명, 보조교사 200명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진단평가를 통해 더 정밀한 대책을 수립하고,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에는 학력지원센터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서 교육감의 지난 100일은 한마디로 '소통과 협력'이다. 당선인 시절부터 김관영 도지사와 손잡고 교육협력을 약속하고, 도내 14개 지자체, 대학뿐 아니라 국무총리, 장·차관, 국회의원을 직접 만나 교류하며 교육협력의 기반을 다졌다. 이 자리에서 서 교육감은 "'전북교육을 바꾸고 살려내라'는 도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아 지난 100일 '학생중심 미래교육'으로 전북교육 희망의 대전환을 위한 초석을 놓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서 교육감은 미래교육에 대해 "무엇보다 교실수업이 바뀌어야 한다"면서 "온·오프라인을 통한 실시간 수업이 가능하도록 디지털 교육환경을 갖추고, AI기반의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학생들에게 스마트기기를 보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학생들의 디지털 활용능력 강화를 위해 교사 연수를 확대하고, 교육지원청별로 찾아가는 수업지원단을 구성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교사들의 수업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혁신학교에서 시행하는 수업공개, 수업나눔 문화가 일반학교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기초·기본학력의 책임성을 확실히 하고 스스로 주도하는 배움, 사회와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 공동체적 삶과 지속가능한 생태감수성 함양 등 미래교육의 가치를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 교육감은 흔들리고 있는 교권을 언급하며 "교권침해를 예방하고,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9월 초 공청회를 열어 현장 교사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했다"면서 "교육주체와 도민의 뜻을 모아 교육인권조례를 만들고, 나아가 학생인권센터는 교육인권센터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학부모와 학생들의 관심사 중 하나인 '학생 1만명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부터 호주·독일에서 30여 명의 직업계고 학생들이 글로벌 현장학습을 하고 있다"면서 "내년에는 해외현장체험과 해외캠프 등 1000명 규모로 해외연수를 지원하고,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면 그 대상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농촌유학에 대해서는 "지난 8월 31일 서울시교육청과 체결한 농촌유학 협약이 결실을 맺어 10월부터 서울 학생 27명이 완주·진안·임실·순창의 학교에서 함께 배우며 뛰놀고 있다"면서 "농촌유학은 학령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산어촌 작은 학교 살리기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 교육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전북학생의회 설립, 진로·진학지도 강화, 3국 체제로의 조직 개편 등에 대해서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서 교육감은 "급속하게 변화하는 사회의 흐름, 시대의 요구에 부응해 전북교육청은 매일매일 혁신을 실천하겠다"면서 "도민께 희망을 주는 '전북교육 대전환'에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중기공유재산 관리 5년단위 계획 수립

전북도, 올해부터 최초로

전북도의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5년 단위 관리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에 따라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하고 올해부터 5년 단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최초로 수립해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고 5일 밝혔다.

해당 계획은 2023~2027(5개년)에 대해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사용료 감면, 관리·처분에 따른 수입금 등에 관한 사항을 담는다.

10월 중 계획을 수립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후 11월 전북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으로 도 사업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연계해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의 효율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미정 도 자치행정국장은 "공유재산의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계획적·체계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수 기자

전주, 세계무형문화유산 보존 '앞장'

시, 19일 시상식… 보스니아 앙카라이크 등 선정
특별기획공연 '장인의 발걸음' 공연도 이어져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무형유산을 보유한 전주시가 인류가 함께 지켜야 할 무형문화유산의 가치를 공유하고, 시민들에게 국내·외 무형문화유산을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다.

전주시는 오는 19일 오후 7시 국립무형유산원 대공연장에서 '2022년 전주세계무형유산대상 시상식'과 무형유산 특별 기획공연인 '장인의 발걸음' 공연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5일 밝혔다.

전주세계무형유산대상은 국가와 광역지치단체가 지정한 49명의 무형문화재를 보유하고, 국립무형유산원과 아태무형유산센터가 자리 잡아 무형문화유산의 보고로 불려온 전주가 소중한 무형문화유산을 전승·발전시키는데 앞장서 온 인물 또는 단체를 찾아 시상하기 위해 제정한 시상제도로, 올해 4회를 맞이했다.

시는 이번 수상자 선정을 위해 (사)무형문화연구원(원장 함한희)과 함께 전 세계에서 활동 중인 무형유산 관련 전문가·연구자·단체·기관·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했으며, 25개국 36개 팀의 후보 중 적격 심사와 심사위원회 심의, 후보자 검증 등을 거쳐 수상자 3팀을 선정했다.

영예의 제4회 전주세계무형유산대상 수상자는 △무형문화유산 교육과 보호에 힘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앙카 라이크(Anka Rair)' △소수민족의 문화를 보존·활성화에 노력한 필리핀의 '이푸가우 박물관(Ifugao Museum)' △지역 전통바구니 제작기술을 보호한 폴란드의 '설판티(Serfenta Association)'이다.

수상자 중 앙카 라이크는 새로운 세대에 무형유산을 전달하기 위한 교육활동으로 지역사회의 무형문화유산을 디지털화하는 프로젝트, 민속축제 개최, 민속문화 연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이푸가우 박물관의 경우 필리핀 북부 코딜레라 지역의 토착민인 이푸가오족의 무형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토착 기술과 이푸가오 계단식논이나 생활풍습 등을 알리고 있다.

설판티는 폴란드의 전통 바구니 제작기술의 보호 및 전승뿐만 아니라, 제작자들에게 가격의 설정 및 제품 판매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대중에게 직접 시연 및 강연을 통해 무형유산의 가치를 인정받도록 힘써온 단체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13호 옻칠장 이의식 보유자가 제작한 상패와 함께 수상자별로 1만 달러의 상금이 수여된다. 시상식에는 올해 심사를 맡은 무형문화유산 전문가인 호주의 아마레이월 갈라(Amareswar Galla), 한국의 최동환 심사위원도 참석해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

시상식에 이어 무형문화유산을 활용해 특별 기획한 '장인의 발걸음' 공연이 이어진다. 이번 공연은 문화재청의 '지역무형유산 보호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김재훈 기자